87 한국의 가능성 지방자치제 성공기미 엿보여

淨化特輯

새로운 움직임 늘어나는 지방근무 희망자

○… 서울로 서울로 꾸역꾸역 몰려들던 사람들이다…○
○…시 지방을 찾고 있다. 유턴현상이 그 조짐을 보…○
○…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농업기술자나 문인들…○
○…이 지방행을 시도했었으나 얼마 안가 흐지부지…○
○…된 과거와는 달리 최근들어 일부 직장인들 사이…○
○…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지원은 자의적인 것이…○
○…라는 점에서… 〈강신구/경향신문 문화부장〉 …○

영국의 과학사가 니드햄은 역사발전을 권력구조에 촛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중세기때 만 해도 동양에 비해 뒤졌던 서양이 갑자기 발전을 거듭, 동양을지 배하게된 것은 서양에 있던 봉건제도의 덕분이라는 것이다. 다시말 해서 서양의 봉건제도 에서는 제후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군사력과 상업을 경쟁적으로 육성, 그 결과로 서구가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중 앙집권적이었던 동양에서는 이런 경쟁이 없었던 관계로 경쟁이없이 지내와 뒤떨어질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이론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예외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해석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정치사회적인 제도가 발전에 한나라의 영향을 주고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열사람이면 백 이구동성으로 지하는 서울만원현상은 정말 하루바삐 해결되어야 할 문제거리다. 안되는 좁은 6백㎢밖에 땅덩어리에 인구가 1천만이 넘는 인구가 북적거리고 있다. 남한 면적의 1천분의 6밖에 안되는 땅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1천만명이 살고있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할 지경이다.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있는 서울의 인구가 이러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줄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일부 지방근무 지사이에서 직장인들 「망아지는 늘어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서 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서울로 서울로 꾸역꾸역 몰려들던 현상과는 정반대의 유턴현상이 일부 일어난 것이다. 방근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 은행에서는 지방자치 점으로 크게 인사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이다. S은행의 경우 대구나 광주 등 가려는 행려는 지방 지점을 늘어 지방으로 원이 줄을 잇고 있고 J은행에서도 지방으로 가려고 몇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이 늘고있다. 이들 지방지사망생들의 대다수는 입원이지만 간혹 지점장급도 끝고 있다. 한행원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승진기회는 같은데 구태여 온갖 공해에다 가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 지방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원은 『서울 또 다른 사원은 『서울이 지방을 원하는 경우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머리가 많은 서울보다는 밥을 수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체 은행에서 무원, 학자, 뿐만 고 문인들 의사 그리고 이 유턴현상은 사이에서 습이다. 별로 볼수 없던 모 예전에는 단지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 지원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점에서과 거의 시도들과는 다른 것이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87년부터 실 시될 것으로 보이는지 방자치제도를 섬공적으로 로 이끄는데 다시없이 바람직스런 현상임에틀림없다. 지방자치제도는 내 고장 내 마을을아끼는 사람이 얼마나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